# 원희룡 장관, "타워크레인의 블랙박스, 작업기록장치 가능성 확인"
## - 11일 오후, 건설현장 스마트 기술 도입 모범현장 방문 -

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**4월 11일(화) 오후 2시**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아파트 **재건축 현장**을 방문하여 ▽▽건설社가 운영 중인 **타워크레인 스마트 기술 적용 사례**를 **직접 보고**, 건설현장 안전을 위한 **작업기록장치 도입 방안**을 **논의**하였다.

○ 해당 현장은 **타워크레인**의 **인양 중량, 풍속 등**을 **실시간**으로 **감지·서버로 전송**하는 스마트 기술을 적용 중이며,

- 관리자는 **원격**으로 타워크레인 **안전 작업 여부** 확인을 통한 **작업 중단 판단**, **일별/월별 분석**을 통한 **안전 작업계획 수립** 등에 활용 중이다.

□ 원 장관은 "지금까지 **타워크레인 사고**가 **발생**해도 **사고 당시의 정확한 자료가 없어** 현장 관계자들의 **증언에만 의존**하여 **사고 원인을 분석**하는 경우가 많았다"라며,

○ "오늘 **현장 확인**을 통해 **안전 작업** 뿐만 아니라, 항공기의 **블랙박스**와 같이 정확하게 **사고 원인을 규명**하고 **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도움**이 될 수 있는 **작업기록장치**의 **활용 가능성**을 확인할 수 있었다"라고 전했다.

□ "**타워크레인**은 건설현장에서 가장 무거운 중량물을 다루는 기계로 **한 순간의 실수**가 **중대 사고**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**철저한 관리**와 **안전을 위한 투자가 필요**하다"라며,

○ "오늘 확인한 **타워크레인 스마트 기술**과 같은 **안전관리 모범사례**가 확산될 수 있도록 **정부가 지원**하는 것이 **건설현장 안전 확보의 첫걸음**일 것"이라고 강조했다.

2023. 4. 11.

국토교통부 대변인